

진화하는 랜섬웨어...전세계 다시 긴장

배달대행 '슈퍼히어로'·부품기업 '에스엘' 등 시스템 마비...매년 신고건수 늘어 美 송유관업체·교통국도 피해...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사용·보안 업데이트 필수

'랜섬웨어 경보'가 다시 울렸다. 최근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랜섬웨어 피해를 입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는 바이러스처럼 컴퓨터에 침투해 중요 파일들을 쓸 수 없도록 막아 버리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몸값(Ransom)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몸값은 거래 흔적이 남지 않는 암호화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으로 꼽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의 랜섬웨어에 공격을 받았다. 이 탓에 미국 동부 전체 석유 중 45% 가량을 공급하는 송유관이 6일 동안 가동 중단됐다. 때아닌 휘발유값 폭등으로 버지니아 등 4개 주는 주유 대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조셉 블라운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최고경영자(CEO)는 결국 지난달 19일 해커에게 약 500만달러(약 56억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육류의 20%를 공급해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하나로 알려진 'JBS'의 미국 자회사는 최근 랜섬웨어에 감염돼 북미·호주 공장을 3일 동안 가동 중단했다. 안드레 노게이라 JBS USA 대표 역시 해커에게 몸값 1100만달러(약 122억원)를 건네주고 공격에서 벗어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밖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증기선 관리국'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랜섬웨어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막기 어렵게 진화하고 있다.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이 탐지할 수 없게 숨는 것을 넘어 보안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미리 저장해 둔 시스템 복원 기록까지 삭제한다.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커의 서버로 옮겨 이종으로 돈을 내게 유도하기도 한다.

윈도우스가 아닌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 감염 이후 수일~수개월 간 잠복기간을 보

낸 뒤 활동을 시작하므로 명확한 피해 시점과 경로를 알아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 없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배달대행기업 '슈퍼히어로'가 전국 3만5000개 점포 영업을 마비되는 피해를 입고,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에스엘'이 시스템 마비를 겪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22건, 2019년 39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27건으로 뛰었다. 올해 신고 건수도 6월 4일까지 65건이 몰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함부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안된다. 중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것도 필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KISA 인터넷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www.boho.or.kr)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 침해신고 전화 118, 종합 상황실(certgen@krcert.or.kr)을 이용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월 20일 첫 우주 관광”

여행티켓, 312억원에 경매 낙찰...낙찰자 추후 공개 블루오리진 CEO 베이조스와 함께 '뉴세퍼드' 탑승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및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2800만달러(약 312억6000만원)에 팔렸다.

블루오리진은 12일(현지시간) 베이조스와 함께 자사의 첫 우주 관광 로켓 '뉴 세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을 할 좌석을 경매에 부친 결과 이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뉴 세퍼드는 다음 달 20일 미국 텍사스에서 베이조스와 그 남동생 마크, 그리고 경매 낙찰자를 태우고 첫 유인 우주비행을 할 예정이다. 이날은 첫 유인 달 착륙선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린 지 5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낙찰자의 신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몇 주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블루오리진은 밝혔다.

전화로 진행된 이날 경매는 480만달러에 시작했지만 159개국에서 약 7600명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불과 4분 만에 2000만달러를 넘어섰고 7분 만에 마감됐다. 티켓 판매 수익은 블루오리진의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인 '클럽 포 더 퓨처'에 기부된다.

이처럼 경매 수익금은 기부하지만, 블루오리진은 이번 이벤트가 아직 초기인 우주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쥐 정자서 건강한 새끼 태어나

냉동건조 정자 최대 6년 보관했다 수정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에서 우주 방사선은 유전자 변이 등을 일으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적어도 쥐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쥐의 정자를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장기간 보관했다 가져와 수정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새끼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山梨)대학의 발생생물학자 와카야마 테루히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쥐의 정자를 ISS의 우주 환경에 장기간 노출한 뒤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위해 지난 2013년 쥐의 냉동건조 정자가 담긴 앰플 48개들이 세 상자를 지구 궤도 약 400km 상공에 떠있는 ISS에 보냈다. 태양이 쏟아내는 것은 물론 태양계 밖에서도 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이 미립자에 의한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생식세포 유전자 손상되는지, 새끼에게 변이된 유전자를 물려주는지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우주 공간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있고 현재 기술로는 투과성이 강한 우주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우주선이 개발돼 있지 않다.

연구팀은 쥐의 냉동건조 정자 앰플을 9개월, 2년, 6년 등으로 나눠 지구로 다시 가져와 수화(水化)시켜 수정했다. 그 결과 168마리의 건강한 새끼가 태어났으며 유전적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우주정자'로 태어난 새끼들이 자라 성체가 된 뒤 무작위로 짝짓기를 해 낳은 새끼도 역시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마나시대학 발생학연구센터 소장인 소장은 말고있는 와카야마 교수는 지구에서 보관하던 정자와 우주정자로 수정



'우주정자'로 태어난 쥐

해 태어난 새끼들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면서 우주정자로 태어난 "모든 새끼는 정상적인 외양을 갖고 있으며 유전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냉동고 없이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냉동건조 방식을 택했으며, 세포와 세포질의 수분을 제거하는 냉동건조 방식이 일반 정자와 비교해 더 강한 내성을 갖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ISS에서 냉동건조 정자를 최대 200년까지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때는 인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 등 다른 동물에서도 유전 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용과 안전상의 이유로 살아있는 동물보다는 생식세포 형태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이 정자에 국한됐으며 냉동 난자와 수정된 배아에 대한 우주 방사선의 영향 등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대면 서비스 늘어난만큼 사생활침해 우려도 커졌다

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비대면 서비스 사용이 늘어난 동시에 이들 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이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7~64세 이하 남녀 3390명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을 거쳤다. 이용자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월 말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항목은 유튜브, 네이버TV 등 무료 온라인 동영상 시청(68.2%), 인터넷 정보 검색(65.0%), 음악 스트리밍(5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횟수가 증가한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61.5%), 인터넷 쇼핑(59.1%) 등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서비스로는 업무·학업 관련 온라인 미팅(83.9%), 온라인 강의(75.8%), 온라인 스포츠 관람 및 문화생활(75%), 온라인 세미나(72.5%) 등을 꼽았다.

이용자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폭넓게 사용하는 동시에 사생활의 감시와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개인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자신의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70.1%가 우려를 표했으며, 온라인에 남긴 자취로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67.7%가 신경 쓰인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